

# 동양의 도자기는 어떻게 유럽서 꽃 피웠나

## 유럽 도자기 여행

조용준 지음

도자와 타일은 어떻게 다를까? 대부분 사람들은 차이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1300°C 이상의 고온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흙은 자기로, 견디지 못하는 흙은 타일로 그 운명이 나뉜다. 따라서 도자 기술이 발달하면 타일 제조 기술도 발전한다. 도자기는 초벌구이 위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 다시 구워내는 것이니 도자기 그림을 잘 그리는 장인들은 타일 위에도 그림을 잘 그린다."

작가이자 전직 기자인 조용준은 품격있는 도자기와 접시, 찻잔을 좋아한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한다. 그는 도자기로 된 찻잔이나 화병, 촛대, 그릇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이번에 조용준 작가가 발간한 '유럽 도자기 여행'은 동유럽 편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지난 2014년 발간한 개정판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담았다. 도자기 하나에 동양 역사와 문화 융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사뭇 흥미롭다.

첫 출간 당시 유럽 도자기 이야기는 입소문을 통해 마니아층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에르메스 찻잔 하나로 지중해 푸른 바다와 포르투갈의 성당을 떠올렸으니.

사실 저자는 도자기 문화에 애착이 깊었다. 그런데 에르메스의 불뢰 다이외르에 마음을 빼앗긴 후로는 '블루'에 대한 탐욕과 동경이 일었다. 자연스레 도자기에 빠져들었다. 동



마이스 도자기박물관 전시실의 청화백자.

양의 자부심이던 도자기가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는지 알고 싶었다.

실제 불뢰 다이외르의 코발트블루는 16세기 명나라와 원나라의 청화백자, 사마르칸트의 모스크와 접합에서 왔다고 한다. 식기 표면은 기하학적 패턴과 동양의 국화 문양에서 차용됐다.

독일의 마이스를 찾는 여행자 대부분은 도자기 회사를

방문할 만큼, 이곳은 유럽 '도자기 성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에서 생산하던 경질 도자기를 유럽 최초 생산했다.

"마이스 도자기가 유럽 왕실 외교를 위한 선물로 사용된 것은 1713년의 일로 아우구스트 1세가 하노버 선제후의 왕비이자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의 딸인 조피(1603-1714)에게 보낸 것이다. 광적인 도자기 수집가이자 감정가였던 조피는 죽을 때 수백 점의 도자기를 남겼는데, 이 중 남아 있는 것은 마이스 찻잔과 받침 두 개 뿐으로 런던 영국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마이스 동남쪽에 자리한 드레스덴은 유럽 도자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츠빙거 궁전은 아우구스트 1세 시기의 1710년 착공해 1728년 완성했다. 아우구스트 1세는 동양 도자기를 광적으로 수집했는데 당시 유럽 왕실에서는 '시누아즈리'라고 불리는 중국풍 동양 문물이 유행했다. 특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년에 최대 800만 점의 도자기를 중국과 일본'을 통해 공수했다.

놀라운 것은 드레스덴 박물관에는 "일본 도자는 조선 도공 이삼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맥락은 이렇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열도를 통일할 즈음 다도가 유행했다. 조선을 침공해 퇴각할 무렵 수천 명의 도공을 붙잡아갔다. 이삼평도 끌려갔는데, 아리타에서 데토를 발견해 백색도자기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드레스덴에 전시돼 있는 일본과 마이스 도자기의 모든 것이 조선 도공 이삼평"에서 시작됐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다.

한편 저자는 "유럽 도자기 브랜드의 대대적 공세는 한·중·일 3국이 도자 문화의 원류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든다"며 "그런 마음도 당연한 것이 예쁜 찻잔, 내가 끌리는 접시는 마음까지 치유해주기 때문"이라고 부연한다.

<퍼시픽 도도·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묘한 철학= 생태철학 연구자인 저자 신승철이 지난 8년간 순차적으로 네 마리의 갈라지들을 입양하고 이들의 집사로 살아가면서 얻은 철학적 지혜를 풀어낸 교양 에세이다. 총 18개의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미셸 푸코의 '자기통치', 펠릭스 가타리의 '횡단', 장 폴 사르트르의 '실존', 자크 데리다의 '현대' 등 현대철학적 개념들을 고양이들의 행동과 습성에 연결 지어 설명한다. <흐름출판·1만5000원>



▲365일=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영화로 알려진 '365'의 원작 소설로 폴란드 작가 블라카 리핀스카가 썼다. 호텔에서 일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주인공 라우라가 시칠리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파피아 가문의 젊은 수장 마시모에게 붙잡히고, 자신과 365일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다산책방·1만6500원>



후회했던 모든 감각'을 기록해 사진과 함께 담았다. <푸른길·1만4000원>

▲식탁과 화해하기=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빵사이자, 요리 연구가인 저자 루비 탄도가 전하는 '잘 먹는' 방법. '함께 하는 식탁', '가정 요리의 기쁨' 등 나와 음식 간의 관계와 이를 통한 즐거움에 집중한다. 저자는 "우리는 요리와 먹는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달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민음사·1만65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집은=2017년 '이빨 사냥꾼'으로 불로나 라가치상을 받은 조원희 작가의 작품이다.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작은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온 아이가 화자로 등장한다. 아이는 예전에 없던 식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빠, 동생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욕조가 있는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작가는 책을 통해 집은 어떤 의미인지,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꽃·1만4500원>

'그것'도, 언니가 말하는 '그것'도, 오빠가 말하는 '그것'도 다 금방 알아챈다. 책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거'라는 단순한 말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가족 간의 이해와 관심을 전한다. <푸른숲주니어·1만2000원>

▲그거 있잖아, 그거! =갑자기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거 있잖아, 그거!" 이 한마디에 답답한 마음을 분출해 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내가 말하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아빠가 말하는

▲푸른 사자 와니니 3: 새로운 약속=이현 작가의 '푸른 사자 와니니'의 세번째 이야기다. 1권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와니니 무리는 2권에서 마침내 '검은 땅'을 차지한다. 3권은 치타, 하이어나, 들개 등 여러 동물들로부터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맞서는 와니니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울러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한다. <창비·1만800원>

# '선녀와 나무꾼'은 사기극? ...법의 관점에서 들여다 본 문화예술

##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백세희 지음

"다중인격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마블 코믹스의 주인공 '헐크'다. 평범한 브루스 배너 박사는 분노를 느끼면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분비돼 헐크로 변신한다. 만약 헐크로 변한 뒤 그가 망쳐놓은 도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 제정신이 아닌 헐크 대신 배너 박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는 145년만에 우리 품에 안겼지만 완전한 반환이 아닌 5년 단위 갱신에 의한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다. 문화재 약탈과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백세희 변호사가 펴낸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법적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法)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이라고 하면 흔히 범죄와 처벌을 떠올리지만 생각 외로 많은 일상이 법에 닿아있고, 문화예술도 그 중 하나다.

저자 백세희는 미술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서 변호사가 됐고, 대형 로펌에서 10년을 근무한 후 저자는 법조인이 '시간 가난뱅이'라는 생각에 퇴사했다. '안 먹고 안 쓰기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미술에서 살던 중 언론사의 청탁으로 예술과 법이 접목된 칼럼을 쓰게 됐다. 이 책은 네이버 인기 칼럼 '백세희 변호사의 아트로(art law)' 중 에서 가려 뽑은 32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1장 '원래 이런 얘기였건가요?'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심정전', '인어공주' 등 잘 알려진 대중문화 콘텐츠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슈퍼 히어로를 통해서는 정당방위 등에 대해 들려주고 '심

정전'과 '선녀와 나무꾼'도 사기, 자살방조 등 '법'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들여다본다.

2장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는 백희나 작가의 동화 '구름빵'을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관련 이야기. 2005년부터 12년간 다툰 이어진 '화가 이종섭·박수근의 그림 위작'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화예술 관련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2015년 대만 전시관에서 12살 소년이 안내원의 설명을 듣다 발을 헛디디면서 작품에 손을 대 그림에 구멍이 생긴 일이 있었다. 지난 2018년 미국 캔자스시에서 5살 소년이 토루소 조형물을 잡고 넘어지는 바람에 미술품을 훼손한 일이 있었다. 두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

3장 '미술관에서 실수로 작품을 깨뜨렸어요!'는 짝퉁의 법률적 문제, 그래피티를 둘러싼 법적인 쟁점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담고 있다. 마지막 4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에선 공연 보이콧, 영화 사전 검열, 오마주와 패러디, 표절의 차이 등 문화예술 관련 법에 대해 다룬다. <호밀밭·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 '밤벌레의 행복'

###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정가 12,000원